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삶

소수매니아 집단을 다룬 책 출간

“올트라리스크나 가디언에 비하면 저글링 러시는 공격력이나 방어력 모두 하급인 유닛이다.” “매뚜기하다가 자리를 빼앗겼는데 알고 보니 사미귀더라. 너는 아직도 도자기 있니?” “오늘 삼창PBE에 내려온 전통을 보니, 어저 그 DOA에서 D가 나왔다면서요?”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빨리 알아듣는다. 《서울대인의 언어》(태학사)를 펴낸 연구동씨의 말처럼 낯선 언어(은어)는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소수집단의 생각과 문화로 들어가는 첫번째 문이다. 그 문을 열면 ‘그들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소수집단의 더 깊은 얘기

전통이 오랜 스포츠 세계는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하다. 예컨대 “초구에 무조건 히트 앤드런을 하라”고 말한다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매니아에게 스포츠는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것 이상이다. 그들은 감독과 함께 작전을 생각하고 투수가 던진 공 하나에 승부를 예감한다. 최근 출간된 레너드 코페트의 《야구란 무엇인가》(이종남 옮김, 황금가지)는 야구 매니아만이 볼 수 있는 상세한 조감도를 담았다.

물론 이 책은 야구를 어떻게 관망해야 하는지 밝힌 안내서다. 하지만 롤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코페트는 이 책에서 어떻게 야구는 그 같은 정교한 룰을 가지게

됐는가, 야구장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타격과 피칭은 어떻게 ‘육체적 활동’에서 ‘정신적 예술’의 경지로까지 승화됐는가 등을 설명한다.

이 책은 오랜 미국 프로야구 전통을 바탕으로 팬들도 잘 알 수 없는 야구의 깊은 속을 낱알이 보여준다. 베이서닝·지명타자·심판 등 경기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뿐 아니라 경기가 끝난 뒤 일어나는 스카우트·동계훈련·포스트시즌 등의 일들도 자세히 다뤘다. 50년 동안 야구만을 취재한 글쓴이 덕에 이 책을 읽으면 투수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에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그 곳에서 벌어지는 삶의 드라마

올해 23세인 신주영씨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프로게이머입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말을 ‘프로그래머’로 잘못 알아듣기 일쑤다. 아직까지 프로그래머란 말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프로게이머 1호인 신주영씨를 비롯한 5명의 SG팀이 쓴 《스타크래프트 히어로》(산성미디어)는 최근 큰 인기를 모으는 네트워크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빠진 젊은이들의 삶을 담았다.

컴퓨터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구세대에게는 믿기지 않을 듯.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이 책은 컴퓨터게임에 빠진 이들이 냉대와 질시 속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만의 꿈을 어떻게 이뤄갔는지 그들의 삶

을 넘나드는 독특한 구성으로 다뤘다.

스타크래프트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쏟아진 전략집과 달리 이 책은 스타크래프트를 둘러싼 사람들의 얘기를 담았다. 따라서 컴퓨터게임은 낯설지만, 이들의 경험담은 익숙하다. 컵라면만 먹으며 게임에 열중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려는 순간, 세계챔피언십을 획득하는 등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익힐 수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낯선 세계를 소개한다는 점은 이현비의 《공수부대 이야기》(지성사)와 이무성의 《호텔 24시》(한승) 역시 비슷하다. 《공수부대 이야기》는 부대의 특성 상 관련정보를 그다지 많이 수록하지 못했지만, 공수부대에 입대하게 된 병사 개개인의 삶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한다. 지나친 자부심이 때로 책임기에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이유로 공수부대에 지원하게 됐는지, 혹독한 훈련 속에서 지탱해온 힘은 무엇인지,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다.

《호텔 24시》는 호텔 경영에만 매진한 글쓴이가 경영과 관련해 겪은 에피소드를 모았다. 이 책의 주제의식은 국내 호텔업계가 얼마나 낙후했는가에 맞춰진다.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는 오너의 무식한 경영방식, 전문경영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호텔업계에서 월급사장으로서 견여야만 했던 비애, 종업원의 파업에는 강패를 동원하고 오너 용도로는 얼마든지 공금을 전용하는 호텔기업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적 풍토 속의 호텔경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지만, 그 뒷맛은 달지 않다.

일반인이 모르는 독특한 문화 소개

반면 CBS보도국 경찰담의 《사건기자 취재파일》(미래문화사)은 언론사 사건기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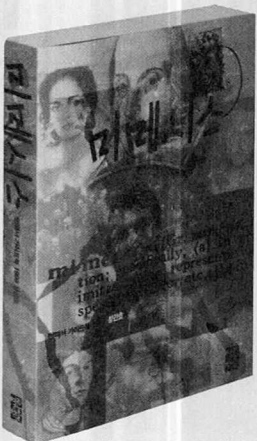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타 크래프트’는 최근 등장한 사이버 문화다. 국내 프로게이머 1호 신주영씨.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다. 기획의도는 경찰기자 취재요령과 실제 사례에 맞춰졌지만, 그 과정에 파악한 사건·사고 및 민원 처리과정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뉴얼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돼 경찰서 사건처리과정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예컨대 경찰조직구조나 관할지역, 경찰 무선용어, 낯선 줄임말 등을 정리했다. 또한 사건기자를 위해서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 기사작성법, 주요 취재원 연락처 등 일반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정보도 수록했다.

《서울대인의 언어》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서울대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를 모아 엮었다. 서두에 말한 매뚜기·도자기 등 다른 학교에서도 사용하는 은어는 물론 팩차기·아크로·그날 등 서울대생만이 사용하는 은어, 남익현 교수 전설·놀분과·시렉터 등 특정 학과에서 사용하는 은어까지 모아 소수집단 속에서 언어의 역할 탐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낯선 집단을 다루는 이런 유의 책은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듯하다. 소개의 차원을 넘어 전문적인 입장에서 알기 쉽게 야구의 모든 것을 소개한 《야구란 무엇인가》처럼 좀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알기 쉽게 소수집단의 문화에 접근한 책이 필요할 것이다.

—김연수 기자



있다. 가장 잘된 번역서는 이윤기가 옮긴 《장미의 이름》, 안정효가 옮긴 《백년 동안의 고독》, 김화영이 옮긴 《카뎀 전집》 순으로 선정됐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번역자와 번역서를 꼽으라면? 국내 전문 편집자들의 앙케트 조사결과 이윤기를 첫자리에 꼽았고 김화영이 뒤를 이

다. ‘출판인들이 뽑은 한국을 대표하는 번역가들’에는 51명의 번역가들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수록해 그들의 문체와 개성을 잘 보여준다.

문학, 인문·사회, 예술·과학·기타 등으로 분야를 나눠 괴테·사미라구·기든스·스펜스 등 작년에 출간된 번역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책 82권에 대한 전문가서평을 실었다. 그밖에 번역서 800종에 대한 짤막한 리뷰, 번역서 1천여권에 대한 서지사항 등을 담아 정보지로서의 역할도 다했다. 한편, 출판사상 최초로 알랭 미세, 라루스, 이틀리에 등 프랑스의 5개 출판사로부터 도서광고료 수주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열린책들/A5신/568면/9500원